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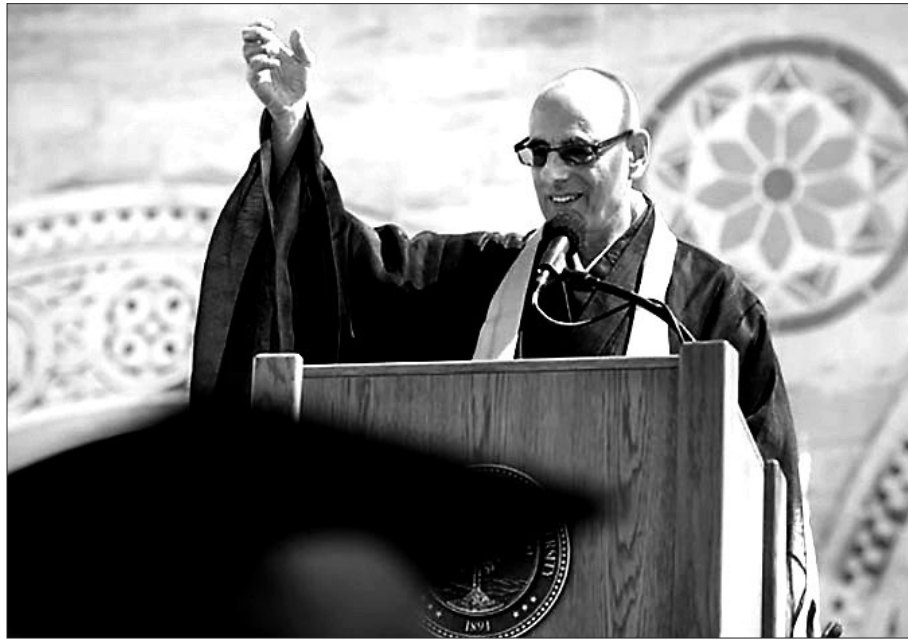
美 스탠퍼드대 졸업생에게 던진 선승의 일갈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2014년도 졸업식에 매일 선 재단(Everyday Zen Foundation) 설립자인 조케츠 노먼 피셔(Zoketsu Norman Fischer, 이하 '피셔') 스님이 초청 강연을 맡아 화제다.

스탠퍼드대 기관지 <Stanford News> 지는 "샌프란시스코 불교계의 지도자 중의 한 분인 피셔 스님이 지난 16일 대학 본관(Main Quad)에서 열린 2014년 졸업식의 초청 연사로 나섰다"며 "이날 피셔 스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자신의 영적 세계를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Stanford News> 지에 따르면, 졸업식 때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명사를 초청, 졸업생을 위한 강연을 진행해온 스탠퍼드대 운영위원회가 올해에는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를 운영하며 명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호스피스 등 지역 복지에도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며 대중의 귀감이 되어온 피셔 스님을 초청했다.

"약속,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주제로 초청 연단에 선 피셔 스님은 "여러분 스스로 대학을 졸업하며 한 맹세를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라고 스탠퍼드대학 졸업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면을 다잡는데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한다"며 "명상과 같은 영적 훈련을 중단하지 않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졸업생에게 다칠 사회적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매일 선 재단(Everyday Zen Foundation) 설립자인 조케츠 노먼 피셔(Zoketsu Norman Fischer) 스님은 6월 16일 스탠퍼드대 본관 메인 쿼드(Main Quad)에서 열린 2014년도 졸업식에 초청 강연을 펼쳤다.

“영적 훈련으로 사랑과 연민의 가치 찾고 실천해야”

노먼 피셔 스님, 스탠퍼드대 졸업식 초청 강연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적 훈련은 사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품었을 세속적 성공을 실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 한 피셔 스님은 "육체적 건강, 화목한 가정, 유쾌한 생활, 연민의 주목 등과 같은 '성

공'에만 주목한다면 '영적 훈련'은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영적 훈련이란 성공이라는 것에서 또는 성공에 주목한 '나'에게서 한발자국 떨어져 '보', '만지고' 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nford News> 지에 따르면 피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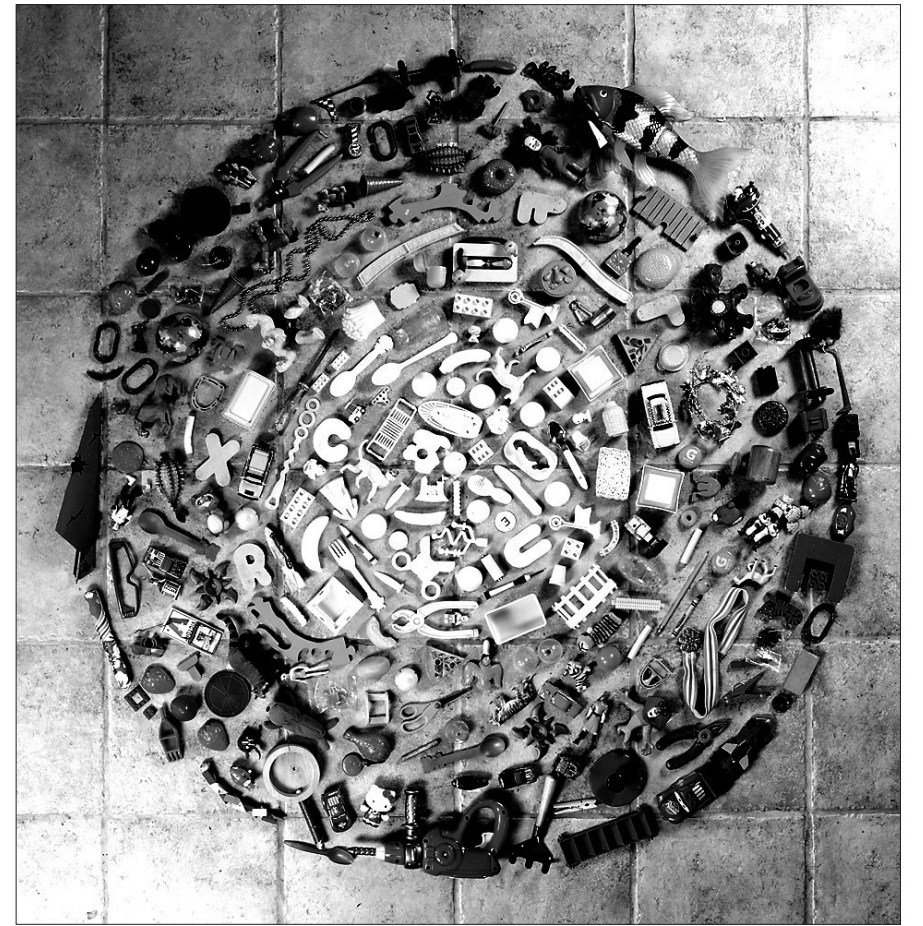
은 스탠퍼드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매일 선 운동(Everyday Zen Movement)'을 주도하고 있다. '매일 선 운동'은 시공을 초월한 일상적인 명상을 권하는 것으로, 명상을 통해 '사랑이 유프고 자신과 주변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연민이 싹트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Stanford News> 지는 "지난해 처음 캠퍼스에서 소개된 '매일 선 운동'의 참여 재학생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며 "스탠퍼드대 운영위원회에서 피셔 스님에게 초청 강연을 의뢰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졸업생 부러(K. Buhler) 씨는 "사랑과 연민이 사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피셔 스님의 가르침이 깊이 남는다"며 "피셔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 졸업식장에 '포용의 온기'를 가득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또한 졸업생 테일스만(T. Talisman) 씨는 "피셔 스님의 말을 들으며 주변의 친구를 유심히 살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그것은 그들에게서 자부심 외에도 '사랑'과 '연민'을 들춰내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소중함이 더해지기 충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이 열린 스탠퍼드대학 본관(Main Quad)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의 일군의 스님들이 준비한 진언을 암송하고, 노래와 춤 공연 무대를 선보이는 등 '불교식 졸업 의식'을 시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가재도구 만다라

완벽하게 정돈된 집. 누구나 꿈꾸는 이상일 것이다. 집안에 흩어져 있는 가재도구가 만다라가 됐다. 미국 출신의 스테판 힐러브랜드와 메리 맥서먼은 집안 구석구석 흩어져있는 가재도구에 질서를 부여했다. 소비주의에 휩싸인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동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은 계속해서 사람과 선반을 점령한다. 두 명의 작가는 물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맹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만다라는 소유인에서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다. 배현진 기자

호주, 말레이시아 스님 은행 계좌 동결

자금세탁 국제조직 관련성 제기...430만 달러 ' 묶여'

말레이시아 불교계 '반발'...멜버른 사원 건축 정재 주장

호주국립은행(National Australia Bank)에 개설된 말레이시아 비구니 스님의 계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빅토리아> 지가 6월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 경찰과 검찰이 비구니 스님의 계좌를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조직의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좌에 있는 430만여 달러(약 43억 원)를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비구니 스님과 국제적인 자금 세탁 조직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존 디슨(John Dixon) 연방 판사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협조로 쿠알라룸푸르 소재 해당 비구니 스님의 사찰을 수색한 결과 마룻바닥 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몽치 돈'을 찾았다"며 "이런 점은 비구니 스님의 혐의에 무게를 더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 머물러 있는 비구니 스님은 "계좌에 있는 돈은 호주 멜버른에 사원을 세우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며 "멜버른에 세워질 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종교적 박해의 피해자들에게 파란치가 될 것"이라고 호주 연방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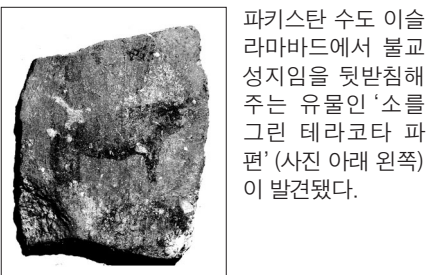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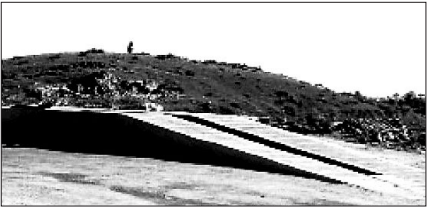
호주국립은행(NAB)은 말레이시아 비구니 스님 계좌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조직의 것으로 판단하고 계좌를 동결시켰다.

"현재 비구니 스님과 관련 말레이시아 불교계는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동결된 예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전한 <빅토리아> 지는 "반면 디슨 연방 판사는 비구니 스님의 국립 호주은행 계좌는 말레이시아 고소득층의 탈세를 위해 개설되었다는 데 혐의를 묻고 있다"며 "호주 연방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이슬라마바드, 고대 중요 불교성지

청동기시대로 추정된 '소 그림 도자 파편' 발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불교 성지임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인 '소 그림 테라코타 파편' (사진 아래 왼쪽)이 발견됐다.

시대의 유물과 유사한 암석과 함께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를 그린 테라코타 파편'이 발굴됐다.

발굴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무하마드 빈 나비드(Muhammad Bin Naveed) 교수는 "테라코타 파편과 암석이 발굴된 말갈라(Margalla) 산은 중동 지역에서 간다라 지역으로 들어오는 중요 통로"라며 "불교의 중요 상징인 소 그림의 테라코타 파편 등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간다라를 지리적으로 접근하는 불교의 교세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라고 의미를 더했다.

<Tribune> 지는 발굴조사단의 수석연구원 키치(Khichi) 박사의 말을 인용, "NCA의 발굴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로, 향후 정밀조사가 시작되면 불교의 확장 경로를 분명히 하는 데에도 적잖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리랑카 불교·이슬람교도 충돌 3명 사망

불교 극단주의 단체 공격으로 75명 중상

스리랑카 남부 지역에서 불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 간에 충돌이 벌어져 3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6월 16일(현지시간) 불교도와 이슬람교도들 간 충돌로 최소 3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사망했으며 75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한 전날 15일 밤에는 알루트가마 마을에서 발생한 이번 폭력 사태로 수십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스리랑카

경찰은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날 불교 극단주의 단체인 '보두 발라 세나'의 대표 법사가 설법을 한 직후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두 발라 세나' 단체는 최근 수년 동안 반 이슬람주의 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에서는 전 국민의 70%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는 7.5%로 소수 종교에 해당된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스리랑카 알루트가마에서 이슬람 교도의 집이 극단주의 불교 단체의 공격으로 불에 탔다.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 | |
|--|---|
| |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싹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
| |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
| | 숨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
| |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
| |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5년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